



한국가금학회 2008 춘계 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이상진)는 지난 13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내에서 '친환경 양계산업 양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의 주제로 2008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양계장 HACCP 적용방안 △외국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스템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 △친환경 유계산업 사례를 통한 국내 유통과 발전 방향 고찰 △친환경 양계사료의 발전 방향 △양계장 살모넬라 감염제어를 위한 친환경 신기술 동향과 응용 △친환경 축산 계란의 유통현황과 품질향상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KBS1 특집 6시 내고향 방송



가금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6월 5일 KBS1 특집 6시 내고향을 통해 AI 극복을 위한 TV특집방송과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본회 이준동 회장의 사철농장의 촬영협조로 시로 인한 가금사육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했고, 생방송으로 서울 명동·양재동 하나로클럽·전주·춘천에서 시식행사와 닭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17:40~19:00시까지 80분간 방송됐다.

UN 한국을 AI 대처 모범국가로 꼽아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엔(UN)이 우리나라를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강력하게 대처한 모범국가로 꼽았다고 6.20일 밝혔다.

유엔의 AI 수석 조정관인 데이비드 나바로 박사는 6.17일 UN 본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AI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영국을 최근 발생한 AI를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통제하는데 성공한 모범 국가로 언급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AI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기존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조치 외에 재래시장에서의

가금류 판매금지, 유통상인 보유 가금류의 예방적 살처분 등과 같은 추가적인 방역강화조치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

2008년도 6월말부터는 농식품을 받고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쌀(밥류) 등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그 외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 22일부터 의무화 시행된다. 표시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으로 단, 쌀과 배추김치는 영업장 면적 100㎡이상(집단급식소는 제외)일 경우에 적용된다. 미표시한 음식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있다(문의 1588-8112).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도쿄대 연구교류협약(MOU)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6월 19일 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Tokyo대학교 동물생

명과학분야의 연구교류협력(MOU)을 체결했다. 축산과학원 성환후 과장은 “이번 MOU 체결로 생명공학분야의 첨단정보 및 기술획득을 위한 연구원의 상호교류와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학술정보 및 첨단 원천기술 상호교환 등 적극적인 공동연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 유용 미생물 배양 및 보존 기술 교육

동원은 6월 16일부터 1주일간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유용미생물 배양 및 보존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개인별 실습을 병행하는 미생물 배양 및 보존 등 직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주 내용이다. 축산과학원 김동운 박사는 “축산유용미생물의 경우 사료효율 개선, 사료섭취량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면역력이 증가해 항생제 대체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악취저감으로 환경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국 재래시장 등 불법도축유통판매 특별 단속 결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강문일 원장)은 2008년 05월 07일부터 05월 28일까지(3주간) 전국 재래시장 및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닭·오리 불법도축·유통·판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반(총543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하여 검역원(405명) 및 시·도(시·군·구)공무원(130명),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8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재래시장·판매업소·농장·도축장 등 857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위반자) 17개소를 적발했다.

검역원에서는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닭·오리 불법도축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조사 축산물의 표준검사방법 확립

최근 미국·중국 등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확대함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검역원은 지난 5년간 축산식품규격연구팀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계란분말은 물론 조사가 금지된 육류와 식육가공품 등의 주요 축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표준검사방법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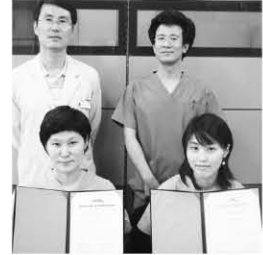
금번에 확립한 검지기법을 수입 축산물에 대한 공인검사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의 축산물시험법으로 입안예고 하였다.

축산물 중 유해 미생물 검사 능력 국제 인증

동원 영남지원 정밀검사과는 영국 농업환경식품부(DEFRA) 산하 Central Science Laboratory에서 주관하는 미생물분야 국제비교속련도 시험인 FEFAS에 참가하여, 축산물 중 유해 미생물 검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다.

특히, 영남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의과학

기술개발연구사업인 ‘Campylobacter spp.의 항생제 내성에 관한 연구’와도 연계하여 최근 닭고기 중 식품안전성과



항생제 내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닭고기 중 캄필로박터균’의 검출 시험에 참가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금번의 성과는 무엇보다 수입 축산물 검사의 최 1선 현장인 영남지원에서 이루어져, 검역원의 연구개발 능력과 함께 신뢰성 있는 검사 능력을 보여 준 쾌거라 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의 GMP 관리와 발전방향” 국제 심포지엄 개최



동원은 5월 22일(목)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용의약품연구회와 서울대 BK21수의과학연구인력양성단 공동 주최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우수업체 (GMP) 관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춘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선진국 GMP 제도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로 외국 GMP 실사 대처 능력이 제고되고, 국내 GMP 기준과 국제기준의 조화 방안이 마련되어 수출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